

힝클리 대관장, 역사적인 유럽 방문



사진 제공: 촬영, 손디 스톤, 처치 뉴스 지부

독일 프라이베르크 성전의 재헌납 후 군중들에게 미소 짓고 있는 힝클리 대관장.

예언자는 최근 5개국의 성도들을 만나는 역사적인 유럽 방문을 마쳤다.

지난 9월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의 역사적인 유럽 방문은 유럽 전역의 성도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 주었다. 그곳을 방문하는 동안 예언자는 새로운 성전을 헌납하고 새로 단장한 성전을 재헌납 했으며, 우크라이나, 러시아, 아이슬란드를 방문한 최초의 말일성도 예언자로서 그곳의 회원들과 정부 관리들을 만났다.

독일 프라이베르크 성전

지역의 성도들에게 물어 보면 그들은 1985년에 있었던 소규모이지만 기쁨 있는 성전의 헌납이 결국 동유럽에 교회가 들어가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말할 것이다. 그것은 현재 대관장단 제1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이 1960년 대에 독일 민주 공화국(구 동독)의 교회 회원들에게 그들도 다른 지역의 성도들이 받고 있는 모든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 약속이 이루어진 일련의 사건 가운데 마지막 단계였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2002년 9월 7일, 헌납

모임에서 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는 데 제약을 받았던 수천명의 교회 회원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완전히 새롭게 단장한 독일 프라이베르크 성전을 재헌납 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성전을 재헌납하면서 “저희는 이 성전을 처음 지을 때 당신의 권세를 나타내 보



사진: 프란시스코 카를로스 로드리게스

독일 프라이베르크 성전의 재헌납 후에 힝클리 대관장과 힝클리 자매를 보기 위해 밖에 모여 있는 군중들

여 주신 것에 감사하오며, 성전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기적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켜 주셔서 성전 건축과 헌납을 가능하게 하심에 감사하나이다.”라고 기도했다.

“이 땅과 이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평화가 계속되고 백성들이 번영하게 하옵소서 ... [또한] 당신의 사업이 이 축복 된 당신의 왕국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힘이 되게 하옵소서.”

프라이베르크 성전의 개축을 완료하는 데 1년 이상 걸렸으며, 새로운 침례반과 사무실 공간뿐 아니라 모로나이 천사상 등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전혀 다른 성전이 되었습니다. 원래의 성전도 그 당시로서는 가장 잘 지어졌었지만 이 성전은 전보다 훨씬 훌륭합니다.”라고 프라이베르크 성전장단 제1보좌인 로버트 티 듀이 형제는 말한다.

성전 구역 전역에서 6000명 이상의 회원들이 재헌납식에 참석했다. 체코 공화국, 헝가리, 폴란드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는 버스를 타고 왔다. 프라이베르크 와드 집회소에는 성도들이 그들의 모국어로 모임을 들을 수 있도록 특별 통역 장비가 준비되었다. 모임은 또한 독일의 드레스덴, 베를린 그리고 라이프치히의 스테이크 집회소에 방송되었다.

재헌납식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는 독일 노이브란덴부르크 스테이크 프렌즐라우 와드의 에디트 크라우제 자매도 있었다. 크라우제 자매는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에 교회에 가입한 후 줄곧 그녀의 남편 발터와 함께 단지 몇몇 성도들에게만 교회 지도자들과의 접촉이 허가되었던 시절부터 교회의 존속을 위해 힘써 왔다.

“교회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먼 거리를 여행해 왔습니다. 우리가 말로 주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실 때, 그 무엇도 그분을 멈추게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본보기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8월에 열린 일반 공개는 또 하나의 본보기이다. 폭우와 강풍으로 인한 파괴적인 홍수가 중부 유럽 전역을 위협하여 성전으로 여행하기가 쉽지 않았다. 홍수에 의한 피해는 드레스덴 근교의 도시에서 가장 심각했다.

프라이베르크 성전의 성전장인 게르트 그윈발트 형제는 “햇빛이 나고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라고 말했고, 그의 말이 맞았다. 폭풍은 가라앉았고 성전이 재헌납 되기 전에 거의 30,000명이 그곳을 방문했다.



네덜란드 헤이그 성전의 헌납식에 참석하기 위해 줄서 있는 벨기에와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온 회원들

네덜란드, 헤이그 성전

9월 8일 이른 아침에 충실한 성도들이 네덜란드 헤이그 성전의 정문으로 이어진 보도를 따라 줄을 서 있었다. 차가 멈추고 고든 비헝클리 대관장이 보도로 내려서자 성도들은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날 교회의 114번째 성전인 헤이그 성전을 헌납한 그들의 사랑하는 지도자를 환영했다.

“이 땅의 충실한 성도들은 당신의 거룩한 사업에 대한 간증을 얻기 위해 이미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과거의 모든 사람들과 오늘날 당신 전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헝클리 대관장은 헌납 기도에서 간구했다.

그는 계속하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는 당신께 간구하나니 이 위대한 나라에서 오늘 이 헌납식이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과 정신을 깊이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이 세속적인 일만을 추구하지 않고 당신에 대한 지식과 성스럽고 영원한 것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품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

“저희는 이 나라의 국민들 사이에 평화가 유지되고 이 땅에 항상 자유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는 이 나라의 국민들이 자신들이 태어난 땅에 대해 항상 감사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기도했다.

또한 네 번의 헌납 모임에는 유럽 중부 지역의 회장인 칠십인 정원회의 디리 토블러 장로와 유럽 서부 지역의 회장인 칠십인 정원회의 해롤드 지힐렘 장로가 참석했다. 이 성전 구역에는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고 프랑스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성도들은 헌납식에 참석하기 위해 성전뿐 아니라 로테르담

사진 제공: 사진 촬영: 오 제이 풀



출처: 뉴스데스크, 사진: 김민준

지난 9월에 우크라이나에서 회원들이 킥리 대관장과 모임을 갖고 있는 동안 합창단이 노래하고 있다. 3,2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예언자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

과 헤이그에 있는 집회소까지도 자리를 가득 채웠다.

“우리는 1999년에 교회가 이곳에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곧 바로 어려움이 시작되는 듯이 보였으나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했고, 여러분은 우리가 네덜란드에 성전을 갖게 된 것에 대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다고 느끼는지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네덜란드 헤이그 스테이크 할렘 와드의 오래된 교회 회원인 로버트 커시바움 형제는 말한다.

지역 정부 및 시 지도자를 포함하여 32,000명 이상의 방문자들이 8월 17일에서 31일까지 열린 일반 공개동안 다녀갔다. 성전 건축에 참여한 근로자들과 그들의 가족들도 완공된 건물을 따로 돌아 보았다.

“작업장에서는 욕설, 흡연, 그리고 음주가 금지 되었고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은 이 건물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보여 주었습니다. 저는 점점 우리가 짓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교회 회원들의 내적 평화를 찾게 해주는 성전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매우 특별한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저는 이것이 제

가 건축할 수 있었던 것 중에서 가장 훌륭한 건축물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라고 성전 건축을 담당했던 건설 회사의 책임자인 애드 배큰스 씨가 말했다.

우크라이나 키예프

지난 9월 9일, 킥리 대관장은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유례없이 많은 성도들로 가득 찬 대강당에서 말씀을 했다. 이 동 유럽 국가에 최초로 방문한 교회 대관장을 맞이하기 위해 3,200명 이상의 성도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모였다.

킥리 대관장은 청중에게 “여러분의 택 [함 받은 세대](베드로전서 2:9)이며 지금은 가장 훌륭한 경륜의 시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청중에게 지혜의 말씀, 신권 축복 그리고 십일조의 법에 순종하라고 권고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십일조를 내지 못할 만큼 여유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성약을 맺었고 주님은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실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킥리 대관장은 말했다.

모임을 마치면서 그는 “제가 단상 아래로 내려가서 여러분 한분 한분을 저의 팔로 감싸드리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라는 말로 그의 사랑을 표현했다.

킥리 대관장은 모임 전에 가진 연회에서 종교 담당 주 위원회 의장인 빅토르 본다렌코를 포함하여 우크라이나의 정부 관계자들을 만났다. 킥리 대관장은 본다렌코씨에게 우크라이나에서 교회의 일과 관련하여 보여 준 그의 친절과 도움에 감사를 표했다. 킥리 대관장은 특히 우크라이나 궁궐 연주회에서 있었던 회원들을 위한 모임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준 본다렌코씨에게 감사를 표했다. 정부 소유의 강당에서 종교 행사를 갖는 것은 무척 드문 일이다.

러시아 모스크바

9월 10일, 킥리 대관장의 말씀을 듣기 위해 코스모스 호텔로 향하는 사람들을 알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하얀 셔츠의 남성



모스크바에서 2,000명 이상의 청중에게 말씀한 후 그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는 힝클리 대관장의 이번 방문은 처음으로 교회 대관장이 러시아를 방문한 것이었다.

들과 스커트를 입은 여성들이 그들의 옆구리에 경전을 끼고 모스크바 근처의 큰 역으로 모여들었다. 총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들의 예언자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세 개의 강당을 가득 메웠다.

“저는 러시아에서 이렇게 많은 청중에게 말하게 되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이곳에 함께하기 위해 먼 곳에서 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아주 훌륭한 날입니다.”라고 힝클리 대관장은 말했다.

그는 회원들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요한복음 20:27)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이들과 딸로서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신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영과 진리로 그분을 예배하십시오.”라고 권고했다. 그는 청소년들에게 복음에 따라 생활하고 선교 사업을 위해 준비하라고 격려했다. 그는 또한 성도들에게 좋은 시민이 되고 그들의 나라를 강화하라고 격려했다.

“모임이 끝난 후 저는 호텔 입구쪽 거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과 합류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으며 교회의 다른 회원들과 저의 느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한 무리가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였습니다.”라고 러시아 모스크바 북지방부 세베로자모스크보레츠키 지부의 마야나 돔브로브스카야는 말했다.

회원들과의 모임 전에 힝클리 대관장은 이 지역 정부 및 종교 관계자들로부터 따뜻한 영접을 받았다. 이들 중에는 러시아 하원의 공공 노조 및 종교 단체 담당 위원회 의장인 빅토르 조르칼체프도 있었다. 힝클리 대관장은 러시아에 교회를 세우는 데 러시아 정부가 보여 준 호의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그는 또한 러시아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은 귀환한 후에 러시아의 가장 훌륭한 옹호자들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이슬란드 레이카비크

날씨가 거칠고 비가 왔으나 구름이 물러갔고, 힝클리 대관장은 고요한 가을 날씨 속에 아이슬란드의 레이카비크에 도착했다. 9월 11일, 그는 그곳에서 200명 이상의 열의에 찬 성도들을 만났다. 그들의 수는 적었지만 그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는 신앙은 강했다.

아이슬란드의 집회소에서만 말씀한 힝클리

리 대관장은 청중에게 그들의 결혼 생활을 강화하고 지혜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며 십일조를 내고 복음을 나누라고 격려했다. 그는 교회의 초기였던 19세기에 유타로 이주해온 초기 아이슬란드 교회 회원들을 칭송했다. 그는 또한 아이슬란드에서 교회가 성장하도록 신앙과 근면으로 돕고 있는 현대의 개척자들을 칭송했다.

레이카비크에 있는 동안 힝클리 대관장은 아이슬란드의 정부 수반인 올라프 라그나그림슨 대통령을 예방했다. 그들은 멋진 녹색 잔디로 둘러싸여 있는 빨간 지붕의 작고 빛나는 하얀 복합 건물인 그림슨 대통령의 관저에서 만났다.

두 분은 아이슬란드에서 유타로 건너갔던 교회 초기 성도들의 이주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림슨 대통령은 “유타를 향한 그들의 여정은 놀라운 용기와 힘을 필요로 했습니다.”라고 인정했다. 그림슨 대통령은 1997년 가졌던 유타 주 방문에 대한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초기 아이슬란드 개척자들의 후손들이 그들의 선조들의 땅과 맺은 연결고리를 유지해 온 방법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었다고 말했다.

힝클리 대관장은 가족, 교회의 세계적인 성장, 그리고 강한 지역 지도자 양성의 중요성 등, 교회의 중점 사항에 대해 언급했다. “우리는 그리스도교 교인답게 행동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리스도 교인들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

처치 뉴스, 리아호나 지역 편집자 및 대관장단 사무실에서 기사 제공

새로운 성전 건축에 대한 발표

대관장단은 브라질의 쿠리티바와 파나마의 파나마시티에 새로운 성전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브라질 쿠리티바 성전은 브라질 파라나



사진제공: 폴링, 손다스트를, 제임스

모스크바에서 2,000명 이상의 청중에게 말한 후 그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는 헝클리 대관장의 이번 방문은 처음으로 교회 대관장이 러시아를 방문한 것이었다.

주와 산타카타리나 주의 스테이크들을 포함하는 성전 구역에 있는 42,000명 이상의 말일성도들이 이용하게 될 것이다. 이 성전은 브라질의 다섯 번째 성전이 될 것이다. 다른 성전들은 상파울루, 캄피나스, 포르투알레그레, 그리고 레시페에 있다.

파나마의 교회 회원들은 그들의 나라에 첫번째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열렬히 환영했다. 파나마의 파나마시티 성전은 파나마에 있는 약 22,200명의 말일성도들이 이용하게 된다.

이 두 성전의 구체적인 장소와 기공식 날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대관장단은 또한 텍사스 샌안토니오 성전의 장소를 발표했다. 그 성전은 샌안토니오 하디 오크 블루바드의 스톤 오크 파크웨이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성전 건축은 올해 초에 시작될 예정이다. 이 성전은 텍사스의 네 번째 성전이 될 것이다. □

교회 회원들이 9월 11일 테러 희생자들을 추모하다

리사 앤 잭슨

날씨가 쌀쌀한 가운데 뉴욕에서는 9월

11일 테러리스트의 공격 1 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수천 명이 세계 무역 센터가 무너졌던 자리에 모였다. 비슷한 그룹의 사람들이 비행기가 공중납치 되어 폭파되었던 펜실베이니아, 워싱턴 디시의 미 국방성 그리고 세계의 여러 곳에서 이날을 기리기 위해 모였다. 교회의 지도자들과 회원들은 그날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생존자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모였으며,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 대관장은 “그 일은 우리 삶의 방식에 영원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라고 말했다.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에는 9월 11일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정오 모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대관장단 제1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이 모임을 사회했으며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들, 그리고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들이 이 모임에 참석했다. 고든 비 헝클리 대관장은 아이슬란드의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 해외에 체류 중이었다.

대관장단 제2보좌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이 공격을 “파괴적인 습격”과 “사악한 음모”라고 부르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비극은 바로 인간 생명의 상실이었습

니다. 모든 사람들은 무고했습니다. 계획된 악의에 의해 2,800명 이상이 살해되었습니다. 우리 시민들 가운데 단 한 명의 죽음이라도 그 생명의 가치는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청중들에게 미국은 축복 받은 땅이며 그러한 축복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합중국 헌법 제정자로 인간들 가운데 위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주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현재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 일했습니다. 우리의 동전에 새겨져 있는 표어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정신과 마음속에도 새겨져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태버나클 합창단이 “내 주를 가까이”, “주님은 내 목자니”, 그리고 “The Lord’s Prayer”를 포함하여 여러 곡의 음악을 제공했다. 합창단이 “America the Beautiful(아름다운 미국)”을 부름으로써 모임을 마쳤을 때 청중들은 마음에 위안을 받았다.

그날 일찍 몬슨 부대관장은 기독교, 이슬람교, 그리고 유대교의 지역 지도자들과 함께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가진 지역 사회 범종교인의 모임에서 말했다. 그는 청중에게 사망자, 생존자, 그리고 그날의 공격 후에 지칠 줄 모르고 일했던 사람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또한 그 공격 후에 보여 주었던 신앙인들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몬슨 부대관장은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인들은 911로(역자 주: 응급전화 119와 같음) 전화하는 대신에 기도하고자 하는 소망으로 그들의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워싱턴 디시에서는 워싱턴 디시의 몰몬



교회 지도자들이 9월 11일의 사건을 기리기 위한 추모식을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갖고 있다. 태버넌클 합창단이 그 프로그램에서 많은 부분을 맡았다.

합창단이 9월 10일에 알링턴 국립 묘지에서 그리고 9월 14일에 워싱턴 디 시 성전의 방문자 센터에서 기념 연주회를 가졌다. 합창단은 남 버지니아 대학교의 관현악단과 협연했으며, 독창자로 데이비드 글렌 해치, 에리카 해치 그리고 리즈 스미스가 노래했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이 9월 11일 추모식에서 위안과 추도의 말씀을 했다.

워싱턴 디시의 공격으로 사망한 교회 회원은 두 명인데 비행기가 건물과 충돌했을

때 미 국방성에서 일하고 있었던 브래디 하우얼과 론다 라스머슨이었다. 라스머슨 자매의 유해는 끝내 찾을 수 없었지만 국방성의 다른 네 명의 희생자와 라스머슨 자매를 위한 특별 추모식이 9월 12일 알링턴 국립 묘지에서 미국군에 의해 치러졌다. 미국군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모든 사람의 유골을 그곳에 묻었다.

하우얼 형제의 미망인, 부모, 그리고 친 형제 자매가 9월 11일 미 국방성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다. 하우얼 형제의 모교인 쉬라쿠즈 대학교에서도 그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브래디 하우얼 지역 사회 봉사상이라는 것을 만들었으며, 이 대학의 웹사이트에 의하면 이것은 “이 뛰어난 미국인을 기억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국가에 대한 그의 헌신적인 봉사 정신이 계속되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한다.

뉴욕 주 뉴욕 스테이크는 9월 8일에 추모 노변의 모임을

가졌다. 브랜트 제이 벨넵 스테이크장이 맡았으며 구세주의 속죄와 구속의 권세에 관한 여러 곡의 음악이 연주되었다. 그 스테이크는 또한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의 요청으로 9월 11일에 세 개의 집회소를 모두 개방했다. 그는 그날 모든 종교의 집회소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도록 요청했다. 스테이크 센터에서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가진 교회의 추모 행사를 방영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해의 추모 행사도 재방영했다.

뉴욕 주의 뉴욕 스테이크는 또한 지난 해 교회 회원들이 보여 준 자발적인 지원에 대해 감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리는 2001년 9월 11일의 끔찍한 참사 이후 매우 관대하게 자신들을 헌신해 준 전 세계의 수 많은 교회 회원들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

“여러분이 보여 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과 봉사의 모범이 많은 생명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소망을 표현함에 있어 여러분과 하나입니다.”

세계 무역 센터에 대한 공격으로 세 명의 교회 회원이 사망했다. 이반 루이스 카피오는 그 날 세계 무역 센터 1번 빌딩 107층에서 일하고 있었다. 메리 앨리스 발스트롬과



지역 지도자들이 9월 11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범 종교인 추모식에 참석한 토마스 에스 몬스 부대관장을 영접하고 있다. 몬스 부대관장이 그날의 기조 연설을 했다.

그녀의 딸 캐롤린 마이어버그는 세계 무역 센터를 들이 받은 첫번째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

발스트롬 자매의 아들인 케이즈빌 유타 동 스테이크 케이즈빌 제17와드의 노먼과 손자 네이트는 세계 무역 센터가 무너졌던 자리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했다. 데저렛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네이트 발스트롬은 “제가 이곳에 올 수 있어서 기쁩니다. 왜냐하면 저의 할머니와 고모의 인생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곳이니깐요. 이제 우리는 우리가 이곳에서 본 것을 우리의 가족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거의 공동 묘지와 같이 ... 성스러운 땅처럼 보였습니다.”라고 말했다.

9월 11일, 유타 주 케이즈빌에서 열린 한 모임에서 지역 회원들은 이 지역 사회와 인연이 있는 발스트롬 자매, 마이어버그 자매 그리고 하우얼 형제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한 기념 공원의 기공식을 가졌다. □

헝클리 대관장의 위안의 말씀

헝클리 대관장은 9월 11일 테러 1주년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은 위로와 위안의 말씀을 했다.



선교사들이 9월 11일을 기리기 위해 뉴욕시의 집회소에 방문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다.



워싱턴 디시의 물론 합창단이 9월 11일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생존자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한 추모 연주회를 갖고 있다.

“오늘 세계는 2001년 9월 11일의 비극을 기억합니다. 비겁한 공격을 감행한 자들의 사악한 행동은 아직도 우리를 충격과 공포에 떨게 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용감한 남성과 여성의 용기 있고 비이기적인 영웅적 행동이 그 비참한 날에 행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친구와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

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목숨을 잃은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도 아주 용기 있게 자신들의 삶을 계속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도 많은 선이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뉴욕, 워싱턴 디 시, 펜실베이니아 그리고 세계 각지의 연기와 잿더미 속에서

지구상의 악을 제거하려는 목표와 단합,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려는 목소리가 커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의로운 수고를 우리는 지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슬픔에 빠져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정의와 자유를 갈망하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

기사 모집

복음 원리와 반대되는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있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좋은 의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2003년 3월 1일까지 Parents, Liahona, Floor 24,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로 여러분의 이름, 주소, 전화 번호, 와드 및 스테이크(지부 또는 지방부) 명칭과 함께 보내 주십시오. cur-liahona-

imag@ldschurch.org의 전자 우편 주소로 보내 주셔도 좋습니다. “Parents”라고 제목란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의견을 잘 받았다고 통보해 드릴 수는

없지만 출판을 위해 채택된 제언을 주신 분들께는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릴 것입니다.

2003년 1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제언



다음은 초등학교 지도자들이 리아호나 2003년 1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충 제언이다. 이러한 제언에 해당되는 공과와 유의 사항과 활동을 원하면 이번 호의 어린이란 4쪽과 5쪽에 있는 “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을 참조한다.

1. 나이 어린 어린이를 위해서 복음 그림 패킷에 있는 그림들을 방안에 무작위로 붙여 놓는다: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는 침례 요한(208), 침례(601), 소경을 고치시는 예수님(213), 병자 축복(613), 최후의 만찬(225), 성찬 전달(604), 성전에서 소년 예수(205), 성전에 가는 젊은 부부(60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235),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선교사들(612). 침례에 관한 노래나 찬송을 부르고 어린이들이 침례에 관한 그림 두 개를 찾도록 한다.(208, 601) 두 명의 어린이에게 그 그림을 가져오게 하고 칠판에 나란히 붙이게 한다. 신약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계셨을 당시의 교회에 대해 배우게 된다고 설명한다.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는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 마태복음 3장 17절을 크게 읽어 준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오늘날에도 똑 같은 의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노래, 그림,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4~15절(신권에 관한 노래나 찬송가를 부른다), 누가복음 22장 19절(성찬에 관한 노래나 찬송가를 부른다), 누가복음 2장 46절(성전에 관한 노래나 찬송가를 부른다), 마태복음 28장 19~20절(선교 사업에 관한 노래나 찬송가를 부른다)과 같은 경전 이야기

로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2. 배도로 인해 교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작은 상자, 컵 또는 나무토막을 사용해 건물을 쌓는다. 각 어린이가 건물에 나무토막을 하나씩 더할 때마다 신약 시대에 구세주의 교회에 존재했던 것들의 이름을 말하게 한 후 적합한 노래나 찬송가를 부르게 한다. 대답에는 침례, 성찬, 십일조, 성전, 신권, 사도 그리고 예언자가 포함 될 수 있다. 어린이들에게 에베소서 2장 20절을 소리 내어 읽게 한다. 배도가 어떻게 교회의 분리를 가져왔는가를 설명하면서 건물을 무너뜨린다. 나무토막을 몇 개의 그룹에 나누어 주고 어린이들이 그 나무토막으로 작은 건물을 쌓게 한다. 어떻게 해서 어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은 것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게 되었는지 설명한다. 어린이들이 신앙개조 제1조와 6조를 암기하도록 도와 준다.

3. 어린이들이 사도의 특별한 부름에 대해 이해하도록 도와 준다. 어린이들에게 마태복음 4장 18~22절을 읽게 한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하도록 부름 받았는지에 대해 토론한다.(예수님을 따르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는지에 대해 토론하고(“그들이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나를 따라오라”와 “사람을 낚는 어부”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어린이들이 예수님이 사도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대해 더 배우도록 돕기 위해 열두 장의 가늘고 긴 종이를 준비한다. 각 종이 위에 이 사도들의 이름을 적는다. 상자 안에 이 종이를 넣는다. 각 반

의 어린이 한 명이 상자에 있는 종이를 꺼내게 한다. 마태복음 10장 1~4절을 읽고 각 사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을 이름이 호명된 순서에 따라 서게 한다. 그런 후 마태복음 10장 5~14절을 읽고 사도들이 어떠한 일을 하도록 요청 받았는지 이야기한다. 어린이들이 이러한 책임 중에 몇 가지를 연극으로 해보게 한다. 현재 부름 받은 사도들과 그들의 신성한 부름, 모든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나 추종자가 되는 것의 중요성 또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받는 축복에 대해 간증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다.

4. 노래 발표: 노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2003년 함께 나누는 시간 및 어린이 성찬식 발표를 위한 개요 참조)는 어린이들이 알고 있고 행해야 하는 것에 대한 결심에 관한 노래임을 설명한다. 각 어린이에게 벽돌이나 돌 모양의 작은 종이 조각과 연필을 나누어 준다. 초등학교를 아홉 개의 그룹으로 나눈다. 각 그룹이 노래 한 구절씩을 그림으로 그리게 한다. 어린이들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 피아노 반주자에게 조용하게 이 노래를 연주해 달라고 부탁한다. 각 그룹이 자신들에게 할당된 구절을 노래할 때 선 채로 그 그림을 보여 주도록 부탁한다. 그런 후 어린이들이 교회 건물의 간단한 윤곽을 그린 종이 위에 그들의 벽돌이나 돌 모양의 종이를 놓게 한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이 노래의 전부를 다시 부르게 한다. 어린이들에게 각 구절의 가사를 상기시켜 주기 위해 교회의 그림들을 가리킨다. 자기 그룹의 구절이 나올 때 그 그룹의 어린이들이 일어서게 한다. □

새로운 추수의 시기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사업에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좋은 여건을 마련하고 계신다. “주님은 우리가 이 거룩한 사업을 진전시켜 나가는데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과학 기술을 개발하도록 기술인들에게 영감을 주”(러셀 엠 넬슨 “새로운 추수의 시기” 리아오나 1998년 7월호 34쪽)셔서 여러 가지 모임과 프로그램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달에는 그 중 가족 역사 사업을 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과 시설을 소개하려고 한다.

가족 역사 사업 전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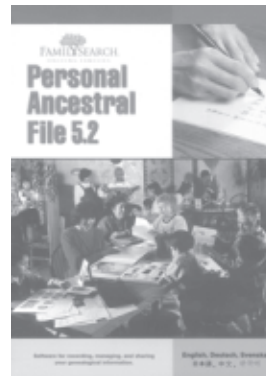
전 세계 성도들이 제출하는 가족 역사 기록의 양은 참으로 방대하다. 그래서 교회는 이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세계의 성전과 자료



를 공유하기 위해 가족 역사 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산화하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의 교회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가족 역사 기록이 실행되고 있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족 역사 기록 사업을 하는 경로는 이렇다. 가족 역사 기록은 컴퓨터 프로그램인 PAF (Personal Ancestral File)에 입력하여 디스켓에 담는데 성전에 이것을 제출하려면 우선 각 지역의 가족 역사 센터로 가져가야 한다. 그곳에서는 성전 의식을 위해 TempleReady라 불리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해 PAF 파일 내의 이름들을 정리한다. 이런 과정을 거친 파일은 세계 각국 어느 성전에 가더라도 대리 의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성전에 제출된 자료는 공식적인 성전 기록으로 저장되어, 교회의 공식적인 웹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머지않아 한국에서도 실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가족 역사 사업을 하려면 PAF 프로그램을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알아야 하고 TempleReady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 가족 역사 센터를 이용해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에 대해 더 이야기 해보자.

PAF(개인 조상 파일)

PAF(Personal Ancestral File)는 문서에 직접 손으로 기록하던 가족 역사 기록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록하는 프로그램이다. 여기에 사용자 개인과 조상들의 족보, 가계도를 입력하고 그 외에도 출생일, 각종



의식받은 날짜, 성장 모습과 유년 같은 개인의 상세한 정보를 기록이나 이미지로 입력할 수 있다.

PAF는 서비스 센터에서 CD를 구입하거나 교회의 공식 웹사이트인 www.lds.org 또는 www.FamilySearch.org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인 민혜

기 장로는 한국 성도들이 이 프로그램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PAF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지역을 방문해서 모임을 가졌다. 앞으로도 방문 교육은 계속될 것이며 와드 단위의 자체 교육을 통한 훈련도 필요하다.

가족 역사 센터(동대문 스테이크, 동대문 와드)

성전 의식을 위해 이 PAF 프로그램을 처리해 주는 곳이 가족 역사 센터인데 현재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동대문 와드에 한 곳이 설치되어 있다. 그럼 가족 역사 센터는 어떤 곳인가를 그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김원백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자.

김원백 형제 저희 가족 역사 센터는 회원들이 가족 역사 기록을 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이곳은 전국의 도서관에서 수집하여 마이크로 필름으로 만들어진 여러 성씨의 족보를 보관하며 회원들이 언제든지 조상의 기록을 찾거나 할 때 이곳으로 연락하시면 족보를 보내드리고 다시 회수하며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PAF 파일을 성전의 전산 처리 과정에 알맞게 처리하는 일도 합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업이 실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머지않아 진행될 것이며 그 때 회원들이 이곳을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 대전, 부산 등지에 가족 역사 센터가 더 설치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곳에서 함께 마이크로 필름을 정리하는 작업을 도울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봉사에 뜻이 있는 회원들은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생애 최고의 기쁨

대전 선교부 김진호 장로, 한송화 자매
서울 서 선교부 김병만 장로, 김문선 자매

이번 달에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 중에 부부가 함께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한국인 부부 선교사들을 만나 보았다.
선교사 명찰을 달고 인생의 황혼기를 맞은 두 쌍의 선교사들이 전하는 이야기에선 삶에 대한 열의와 정열로 가득했다.

부부 선교사는 어떤 일을 합니까?



김진호 장로 부부 선교사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젊은 전임 선교사들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합니다. 개종자를 찾기 위해 전도를 하고 저활동 회원을 활동화 시키는 일을 하며 활동 회원들을 방문하여 영을 나눕니다.

김병만 장로 저희 부부는 주로 저활동 회원을 돕는 일을 합니다. 물론 봉사 활동과 활동 회원을 돕는 일 등 보통 젊은 선교사들이 하는 일을 하기도 하지만 주로 저활동 회원을 찾아 다시 활동화 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건강면에서 젊은 선교사들과 비교했을 때 그 많은 일을 다 소화하기엔 약간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김병만 장로 사실 저희 부부가 선교 사업을 지원하던 당시 가장 우려했던 것이 그 부분입니다. 선교 사업을 나오기 전에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과 척추 수술 등을 받았던 제 자매는 3시간 이상 앉아 있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주변에서

도 많은 염려가 있었고 저희도 많이 걱정했던 부분이지요. 그러나 선교 사업 후 아침 6시 30분에 시작하고 10시 30분에 끝나는 고된 일과에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희는 건강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 사업에 기쁨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장로 저희 나이가 되면 가장 염려 되는 것이 건강일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매우 건강합니다. 특히 저는 선교 사업 전에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병은 대부분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재수술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교 사업을 한 후 오히려 눈이 더 밝아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선교 사업은 어떻게 결심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선교 사업을 나오시기까지 어려움은 없었나요?

김진호 장로 선교 사업에 대한 소망은 오랜 세월 교회 안에서 생활하며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특히 저희의 네 아들이 모두 차례로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그러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는데 선교 사업이 정말 중요하고 고귀하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라는 것을 자녀들을 통해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저와 가족은 주님으로부터 이루 다 셀 수 없이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의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이 선교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김병만 장로 저희 부부는 젊은 시절부터 부부가 함께 선교 사업을 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려니 인간적인 유혹이 많이 있었죠. 지난 2000년, 제가 정년 퇴임을 하고 드디어 저희에게 선교 사업을 나갈 시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는 한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혼기가 다 된 막내딸이 저희가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결혼을 하게 된다면 부모없이 그 큰일을 치뤄야 될텐데 하는 걱정으로 망설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중 저희가 소속되어 있던 대구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대회가 열렸는데 기쁘게 장로님이 저희 지역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쁘게 장로님이 대회에서 말씀하는 도중 갑자기 “이제 김병만 형제 부부가 선교 사업을 나갑니다!”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까. 저희는 바로 그 다음 주에 저희 와드 감독님과 선교사 지원을 위한 접견을 했습니다. 기쁘게 장로님께 망설였던 이유를 말씀드리자 저희가 선교 사업을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부부 선교사는

휴가를 잠깐 낼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용기를 내었고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부 선교사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선교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김진호 장로 부부 선교사들이 선교 사업을 가는 절차는 젊은 선교사들과 똑같습니다. 소속 와드의 감독님, 스테이크장님과 접견하고 선교사 추천서를 교회 본부로 발송합니다. 그리고 선교사 훈련원에 가서 선교 사업에 필요한 것들을 배웁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는 추천서를 보낸 뒤 미국에 가야할 일이 생겨서 솔트레이크시티 프로보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에서 교육을 받은 것이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른 점일 것입니다.

김병만 장로 저희는 한국 부부 선교사로서는 최초로 한국 선교사 훈련원에 입소했습니다. 그곳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개종한 지 40여 년이 흘렀습니다만 아직도 제가 알지 못하는 많은 진리가 있다는 것을 피부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젊은 선교사들과 함께 수업을 받으며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곳에 잘 준비된 제 손자 손녀 또래의 교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마음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회원이라면 꼭 한번은 선교사 훈련원에 가서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교 사업 후에 있었던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것입니까?

김진호 장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사랑이 가득한 주님의 말씀을 실감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제 자식처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것은 저에게 큰 변화입니다.

한송화 자매 저 또한 선교 사업에서 가장 많이 배운 것은 사랑입니다. 예전에는 주위 사람들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모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음을 열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선교 사업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선교 사업을 너무나 사랑하고 영원히 이 사업을 행하고 싶은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저의 동반자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짐을 느끼

고 신권 형제를 더욱 존중하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도 많이 느낍니다.

김병만 장로 선교 사

업은 개인의 가치를

높여 줍니다. 영어

교사였던 저는 선

교 사업에서 저의

재능을 아주 유용하

게 쓰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족 영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저희 지역의 동사무소에서 영어를 가르쳐주는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와드에서 오랫동안 지휘자로 봉사했던 김문선 자매는 동사무소 영어 수업 중간에 가곡을 가르칩니다. 사회에서 은퇴하고 집에만 있었다면 편안하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지금 느끼는 보람과 기쁨에 비한다면 너무 보잘것 없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김문선 자매 자녀들과 고향에서 지냈을 때도 기쁘고 축복받은 생활이었지만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선교 사업이었고 지금 보람이 가득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김진호 장로 지난 2000년 9월에 시작한 선교 사업은 이제 햇수로 3년이 다 되어갑니다만, 그 동안 주님께서 고향에 있는 가족과 친지 모두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가족들이 전하는 소식에는 어느 하나 불행한 일 없이 행복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주님의 축복에 보답하고자 이 선교 사업을 선택했는데 주님께서 아직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축복을 저희에게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김병만 장로 제가 아직도 용기를 내지 못하고 집에서 지냈다면 평범한 노부부로 늙어갔을 저희에게 새 인생을 얻게 해 준 이 사업을 정말 사랑합니다. 어디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뿌듯하고 기쁜 일입니까. 제가 가진 재능으로 누군가가 기쁨을 얻을 때의 보람을, 수년간 저활동이었던 분들이 다시 성찬식에 참석하고 활동하게 됐을 때 그 감동을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절대 맞볼 수 없었던 기쁨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약 6만 명의 저활동 회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경험이 많은 부부 선교사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행복에 여러분도 부디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원 봉사로 가곡을 지도하고 있는 김문선 자매



가족 구도자들을 침례 주는 김진호 장로 부부

한국 성도들의 메신저

리아호나 지역 기자들의 간증

작년 한 해 동안 리아호나의 여덟 쪽 지역 소식을 책임졌던 리아호나 지역 기자들의 간증을 모았다.

언제나 지역의 소식과 주변 사람들의 간증을 취재하는 이들에게 정작 기자 자신의 간증과 경험을 나누어 주기를 부탁했을 때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머뭇거리며 보내온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김미숙 기자(강릉 지방부)



얼마 전에 '하나님의 어린양'이라는 비디오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희생과 부활을 영상으로 담은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랑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주님은 그 방법까지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부름이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리아호나 기자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봉사하고 값진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희순 기자(서울 스테이크)



지역의 크고 작은 모임들을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나누는 리아호나 기자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사실 적지 않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사를 준비하면서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경험으로 이 부름 역시 교회의 여느 부름들처럼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좀 더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제가 쓴 기사가 모임에 직접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읽었을 때 충분히 그 모임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승철기자(동대문 스테이크)

니파이삼서 23장에서 주님은 니파이에게 사무엘의 예언이 성취된 일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제게도 주님의



백성에게 일어난 일들을 왜 열심히 기록하지 않는다고 물으십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고대나 오늘날이나 기록을 만드는 것은 주님과 그 백성의 몫일 것입니다. 이제 제 부름에 대해서 조금 더 경건하고 숙연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리아호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주님 백성의 경전이 되고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이미경 기자(대구 스테이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나 서부 개척 시대 초기 성도들의 행적은 아마 누군가가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 기록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초기 성도들이 이룩한 역사를 읽고 배우며 감동을 받고 간증을 갖게 됩니다. 우리 리아호나 기자들의 역할은 이 시대 성도들이 만들어 가는 역사를 기록하고 알린다는 것입니다. 후세에게 역사의 한쪽을 넘겨주는 이 일은 큰 기쁨입니다. 성도들의 신앙 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개인적인 간증 그리고 신앙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이 부름은 축복입니다. 부름에 충실하면 그에 합당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박유미 기자(광주 스테이크)

부름은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제가 더욱 겸손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기사를 쓰기 위해서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모임에 더욱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모임에서 영을 느낄 수 있게 준비하며 발전하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동안 부름을 받아 봉사하며 발전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 드립니다. 때로 치지고 힘들 때도 많이 있었지만 저를 도와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남경희 기자(서울 북 스테이크)



제가 다른 기사는 모임이나 인물 관련 기사가 대부분인데, 그것은 육하원칙에 의거한 단순 사실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임에 참석하고 사람들과 직접 대담해서 그 느낌까지 전달해야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공책 한 쪽 분량

기사 정리에 약 다섯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일기를 쓰듯이, 편지를 쓰듯이 조금씩 편안한 마음으로 쓸 수 있게 되었고 대부분이 단신 기사였지만 내가 정리한 기사가 편집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고 리아호나에 실린 것을 보는 것은 기자로서 가지는 기쁨 중 하나입니다.

김순애 기자(제주 지방부)



회원들이 전해주는 간증을 먼저 접할 수 있는 것은, 리아호나 기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일 것입니다. 리아호나에 실을 회원들의 간증을 모으고 정리하면서 많은 회원들의 간증을 읽게 되는데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개개인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들의 신앙에서 참으로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그와

더불어 저의 간증도 더욱 커지게 됩니다. 물론 이 일이 쉽지는 않았 습니다. 교회의 모든 모임에 참석하여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기사화 하고 사진을 찍어 현상하여 서비스 센터에 보내고, 회원들에게 간증을 부탁하기도 합니다. 기자의 부름을 맡고 있는 만큼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모임에 빠지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박주환 기자(인천 스테이크)



리아호나에 글을 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지만 저희 인천 스테이크의 발전하는 모습과 회원들의 좋은 소식을 한국의 모든 성도와 함께 나누며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부름에 충실 하려 합니다. 주님은 때로 역경을 주시지만 극복 하려고 노력한다면 발전과 노력의 결실을 축복 으로 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늘 범사에 감사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역경이 오건 축복이 오건 늘 변함없는 감사를 드리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이 말일의 시대에 제가 침례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큰 기적을 베푸시고 축복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 드립니다.

권순길 기자(마산 스테이크)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분입니다. 저는

항상 그분의 희생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전을 잘 이해하고, 계명을 충실히 지키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수하게 간 구한다면 그분이 분명히 우리를 축복해 주신 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리아호나를 더욱 가까이하고 사랑한다면 가정과 개인 에게 축복이 더해지리라 생각합니다. 2002년도의 아쉬움과 실수를 잘 기억해서 2003년에는 한결을 더 진보되고 참신한 기사를 제공 하는 기자가 되고자 다짐합니다.

심재선 기자(대전 스테이크)



1962년 6월 고교 시절 서울 삼청 지부에서 침례를 받고 교회 회원이 된 이래 쌓인 간증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저의 특별한 간증은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로 승리하였다는 것입

니다. 제가 늘 묵상하는 성구는 교리와 성약 76 편 5절의 “나 주는 나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자비로우며, 은혜를 베푸나니, 끝까지 의와 진리로 나를 섬기는 자를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노라”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이 진실한 예언자임을 간증합니다.

이상호 기자(수원 스테이크)

리아호나 기자로 부름 받고 나서 리아호나를 대했을 때의 느낌은 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나의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귀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리아호나의 바늘 끝 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도록 가르칩니다. 이번 한 해는 더욱 복음을 사랑하고 이 좋은 소식들을 이웃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조영직 기자(순천 지방부)



매달 리아호나 표지의 날짜가 바뀌는 것을 보면서, 리아호나 기자로서 지낸 세월도 이렇게 더해져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동안 기자로서 부름을 수행하며 부족한 점이 많았던 제 모습이 생각나서 자꾸 부끄럽 습니다. 제가 우선 순위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합당하고

기쁨 때든지, 낙담하여 절망에 빠져 있을 때든지 언제나 저를 지켜 보고 계시는 주님께 무릎꿇고 겸손히 누워치며, 내일은 이 일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더 큰 힘과 용기를 간구 해야겠습니다. 마침 과 시작이 만나는 이 절기에 제가 해야 할 일을 찾아내는 지혜가 제게 주어지길 기도 드리 봅니다.

홀스트롬 북아시아 지역 회장 기자 간담회 가져

북아시아 지역 회장인 도널드 엘 홀스트롬 장로가 12월 6일 조선 호텔에서 국내 주요 일간지 기자들과 연말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홀스트롬 장로는 복음이 전파된 지 50여 년이 지난 한국은 이미 교회 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여름부터 주요 스테이크에 설치된 위성 장비를 통해 연차 대회 등 교회의 모든 소식을 보다 빠르게 접하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그는 또 “지난 95년부터 교회는 북한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농산물, 의료 장비 및 의료약품, 과수나무, 비료, 농약, 교육 관련 물품 등을 대규모로 지원해 오고 있다. 특히 북한 지역 주요 병원 세 곳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홀스트롬 장로와 한국 공보 담당 위원들(오른쪽
윗쪽부터 구분동 한국 공보위원장, 홀스트롬 장로, 고원용 장로)

에 수많은 의약 관련 물품을 지원하고 교회에서 지정한 농장에 과수 나무 등을 집중적으로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5년, 사과 나무 500그루로 시작된 북한에 대한 농장 지원은 계속 늘어나 금년 5월에 홀스트롬 장로가 직접 북한을 방문하여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실수 33,000여 그루를 지원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북한 농업성 관리 등 농업 전문가 4명을 미국으로 초청, 유타주와 워싱턴주를 돌며 과수나무 재배 등에 대해 교육을 시켜주었다. 7년에 걸친 교회의 이 같은 지원에 대해 북한 당국이 교회를 가장 신뢰할 만한 비정부기구(NGO) 중 하나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선, 동아, 중앙, 한겨레 등 주요 일간지 기자 7명이 참석했으며 고원용 장로와 구분동 공보위원장이 배석했다.

광주 스테이크 청년 축제

지난 11월 23일, 광주 스테이크 총장 와드에서 광주 스테이크 청년 창립 기념 행사가 있었다. 이 날 김용진 형제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때때로 용기가 필요하다. 지금 여기에 있는 청년들은

모두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들이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이 곳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얼마나 축복받은 곳인가를 청년들에게 일깨워 주었다. 각 와드는 청년 각 반의 모토와 주제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물몬경이 중요하고 이 교회가 참됨에 대해 연극으로 보여주었다. (기사 제공 김논산)

대전 스테이크 예술제

스테이크 활동 위원회가 준비한 대전 스테이크 예술제가 12월 7일 대덕 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초등학교의 캐롤송을 시작으로 피아노 연주, 스포츠댄스, 대금, 가야금, 발레, 리코더연주, 바이올린 공연이 이어졌고 대전 지역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역사를 영상으



리코더 합주하는 삼성 와드 청남과 상호부조회 자매들

로 편집한 영상 쇼 등을 관람하며 회원과 구도자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심재선 기자)

서울 강서 스테이크 합창대회

지난 11월 23일, 강서 스테이크 센터에서 김정권 스테이크장의 감리로 강서 스테이크 합창 대회가 열렸다. 올해로 두번째인 이번



강서 스테이크 합창 대회에서 공연하는 김포 와드 회원들

대회에서 전년도보다 한층 높아진 기량으로 8개 와드가 치열한 접전을 벌였는데 영예의 최우수상은 '엄숙한 생각'과 '아프리카 노엘'을 공연한 김포 와드가 차지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인천 스테이크 정대판 축복사는 심사평을 통해 지휘자와 반주자의 호흡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대부분 악보를 보며 발표한 다른 와드와 달리 악보 없이 곡을 완전히 외워서 훌륭히 소화해낸 김포 와드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기사 제공 이성열)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신권 대회

지난 10월 27일 동대문 와드에서 동대문 스테이크 신권 대회가 열렸다. 이번 모임은 '잃은 양 찾기'를 모토로 스테이크 전체에서 전개되고 있는 가정 복음 교육에 대한 각 와드 지부의 성과를 보고하고 간증을 나누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화양 와드의 최세웅 형제는 직장 진로 문제로 저활동이던 형제에게 가정 복음 교육을 꾸준히 해서 활동화 되도록 도왔고 지금은 교회의 지도자로 봉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가정 복음 교육의 영화로운 결실에 대해 간증했다. (전승철 기자)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합창 대회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의 합창 대회가 지난 11월 23일에 동대문 와드에서 열렸다. 각 와드 지부는 그 동안 준비한 합창을 발표했는데 특히 화양 와드는 평소 안식일 모임 전후로 합창 연습을 하고 종종 발표회를 여는 등의 노력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중랑 와드의 이충송 자매는 가야금을 연주해 한국 음악의 아름다움을 전했다. (전승철 기자)

서울 동 스테이크 청년 축제

서울 동 스테이크가 지난 11월 23일, 도봉 와드에서 청년회 창립을 기념하는 청년 축제를 열었다. 이번 모임은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행과 봉사를 소개하며 그로 인해 기쁨을 느끼도록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다. 각 와드 청소년들은 중창, 수화 시범, 핸드벨 연주 등을 준비하여 공연하였고 장위 와드의 구도자인 송민희 자매가 피아노연주를, 의정부 와드 배태주 형제가 플루트연주를 공연했다. 서울 동 스테이크 청소년들은 이번 모임의 주제를 실천하기 위해 이날 공연된 음악 발표로 12월 7일, 장애인 수용 시

가족 역사 기록에 대해 프리젠테이션하는 길음 와드 회원들

설인 '쉽터 요양원'에서 다시 한번 음악회를 열 예정이다.

가족 역사 기록 훈련 모임(서울 동 스테이크 길음 와드)

지난 11월 31일, 서울 동 스테이크 길음 와드에서 가족 역사 사업을 위한 가족 역사 기록 훈련 모임이 있었다. 한달 전부터 모임을 준비해 온 길음 와드 회원들은 계보 정리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인 PAF(Personal Ancestral File) 이용법을 배웠는데 대체사 그룹장인 우성춘 형제의 지도 아래 여러 대의 노트북으로 참석자 모두가 족보를 직접 입력하며 사용법을 익혔다. 이날 강의를 주도한 우 형제와 감독단은 편리하고 능률적인 이 프로그램의 장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PAF를 이용한 계보 사업을 하려는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프로그램 사용법을 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서울 북 스테이크 음악제

2002 북 스테이크 음악제가 지난 11월 23일에 서울 북 스테이크 녹번 와드에서 열렸다. 회원과 구도자 등 250여 명이 함께한 이번 음악제는 북 스테이크의 여섯 개 와드 지부가 각각 차례로 두 곡씩 발표했는데 마지막으로 공연한 일산 와드는 다섯 명의 청소년이 성인들의 합창과 더불어 플루트 연주와 바이올린 연주를 선보였다. 초등학교와 청년회의 중창, 불광 와드의 정예리, 정현철 남매의 피아노 듀엣 등 찬조 출연자들의 음악 발표도 이어졌다. (남경희 기자)

서울 스테이크 성전 세미나

지난 11월 17일, 서울 스테이크가 오히근 스테이크장을 감리로

신당 와드에서 성전 세미나를 가졌다. 이 모임에서 주덕영 형제는 성전의 역사에 대해 말씀했고, 닐슨 성전장은 성전은 우리가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을 상징한다고 말씀했다. 특별히 더 자주 성전에 참석하기 위해 성전 근처로 이사하고, 성전이 열리는 날은 어김없이 참석해서 그 날의 모든 세션에 참석한다는 신촌 와드의 호희순 자매의 간증은 참석자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다. 이 날 세미나에는 약 120 여명 가량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성전에 대한 큰 관심과 열의를 보여주었다. (정희순 기자)

안양 스테이크 함영주 형제 사법시험 합격



안양 스테이크 금천 2와드의 함영주 형제가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함영주 형제는 현재 부인인 이자연 자매 사이에 딸(함국빈) 하나를 두고 있다. 함 형제는 와드 성찬식 안내자로 봉사하고 있으

며 이자연 자매는 와드 초등학교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금천 2와드 안병철 감독은 함 형제의 사법시험 합격을 형제의 순수한 신앙에서 비롯된 열정과 이자연 자매의 헌신적인 내조가 결합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다. 함영주 형제는 앞으로 말일성도 법조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중호 기자)

수성 와드 금식 간증 모임 TV 방송

지난 11월 6일부터 8일까지 TJN 대구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 대구 스테이크 수성 와드의 성찬식 및 금식 간증 모임이 “참 가르침을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으로 방송되었다. 지역의 교회를 기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11월 3일에 있었던 수성 와드의 성찬식 모임을 촬영하여 금식 간증일이었던 그날의 모임 전과정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소개를 50여 분에 걸쳐 방송했다. 이 방송에서 대구 스테이크장단 제 1보좌인 차대환 형제가 교회에 대한 소개를 맡아 진행했는데 교회의 복지 프로그램, 전 세계 전임 선교사들의 활동 및 교회 규모, 도덕적인 생활과 성찬식, 가정의 밤 등의 교회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며 이 교회는 요셉 스미스에 의해 회복된 하나님의 참된 교회이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고든 비 힝클리 대 관장은 살아계신 현대의 예언자임을 밝혔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은 무보수로 봉사하는 것임을 이야기했다. 성찬을 전달하고 취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반영되고 이어진 인터뷰에서 수성 와드 회원들은 가족과 사랑과 봉사가 함께하는 신앙 생활에 대한 기쁨과 간증을 전했다. 또한 선교사들은 구원의 계획을 소개하며 그것을 전하는 것이 선교사들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일 또한 자비를 들여 하는 일이라는 것을 밝혔다. 리포터는 “자율적인 예배를 통해 평등과 주인 정신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여러분이 세상의 주인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말하며 방송을 마쳤다. (이미경 기자)

역원 변경

대전 스테이크

유성 와드 정광순 (전임: 김낙형)
둔산 와드 정상조 (전임: 김노원)

동대문 스테이크

이문 지부 이후현 (전임: 위계정)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258기 4명/해외1명/성전 2명



김로는 자매
마산 스테이크
거제 와드
서울 서 선교부



김지현 자매
마산 스테이크
경화 와드
대전선교부



김승환 장로
서울 남 스테이크
신림 와드
부산선교부



정기환 장로
광주 스테이크
첨단 지부
서울 선교부



이정은
영동 스테이크
성남 와드
유타 템플 스케이
선교부



칼 헐 헌게이트/
켄달린 헌게이트
먼머스 오리건
스테이크
윌라미나 와드
한국 성전